

劉淑의 修禊圖와 趙熙龍의 紅白梅圖

김종태(金鍾泰)

I. 머리말

II. 유숙 〈수계도〉 해제

III. 유숙 〈수계도〉의 시문과 인장

IV. 조희룡 〈홍백매도〉 해제

V. 조희룡 〈홍백매도〉 화제

VI. 맺음말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주요논저:

「규장각 소장 『경상도명승도』 고찰」, 『규장각』 45(2014), 『허백당집 5』(한국고전번역원, 2015), 『麟坪大君房全圖』와 御製祭文을 통해 본 朝鮮王室의 友愛 宣揚, 『민족문화』 45(2015)

2016년 가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을 열었다. 이 글은 그 때 전시되었던 두 폭의 19세기 중엽의 회화 작품에 실린 화제와 인장 등에 관한 것으로, 그 때 도록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주석을 갖추고 다소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전통 회화 작품은 글과 글씨가 그림과 함께 어울려 독특한 미적 성취를 이룬 것이 많다. 특히 고인들은 그림에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여 그림 감상에 앞서 적힌 글에 대한 이해가 요청될 뿐만 아니라 글씨 역시 글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을 이루고 있다.

劉淑의 〈修禊圖〉와 趙熙龍의 〈紅白梅圖〉는 바로 그러한 작품으로 다양한 이체자와 독특한 서법, 그리고 까다로운 문맥이 있어 정확한 판독을 한 다음, 문맥적 의미를 주석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 〈수계도〉에는 모임에 참석한 사람 전원의 시가 수록되었고 작품의 창작 배경과 그 의의를 밝히는 서발문이 있어 작품 창작의 의지와 의도를 체감하게 해 준다. 또한 글쓴이의 개인적 서체가 많아 당시 중인층의 서법 문화를 엿보게 하며, 글 여기저기 찍힌 인장은 글에 대한 신뢰성과 함께 당시 성대한 모임의 현장성을 느끼게 해 준다.

〈홍백매도〉에 적힌 화제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감동적인 이유를 알려준다. 기세등등한 매화 등걸과 고운 매화꽃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역양과 골기 있는 필법으로 격정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글의 내용과 함께 깊은 심미적 울림을 안겨준다.

두 작품의 번역을 참고하여 더 한층 깊이 있는 그림 감상의 재미를 얻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劉淑, 修禊圖, 趙熙龍, 紅白梅圖, 題畫詩, 序跋文, 印章

劉淑의 修禊圖와 趙熙龍의 紅白梅圖

김종태(金鍾泰)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I. 머리말

이 두 작품은 필자가 어떤 의도가 있어 선택한 것은 아니다. 2016년 가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을 준비하면서 필자에게 탈초·번역을 의뢰한 것이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두 작품은 당시 중인들의 예술적 교유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다. 趙熙龍(1789~1866)이 전라도 임자도에서 〈紅白梅圖〉를 그린 것은 1851년(철종2)이고, 劉淑(1827~1873)이 남산 墨溪에서 〈修禊圖〉를 그린 것은 1853년으로 비슷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조희룡에게 매화도를 부탁한 羅岐(1828~1874)가 수계 모임에 참석하여 詩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은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때 적힌 글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 역시 풍부하다. 두 작품이 창작 배경이나 그 의도는 서로 다르지만 당시 문화의 신흥 향유자로 부상하고 있던 중인들의 창작 의욕과 자기 정체성이 뚜렷이 부각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수계도〉에 실린 序跋文과 拜觀記는 물론이고 30여 명의 시를 보면 시화축을 만드는 자신들의 행위에 상당한 시대적 의미 부여와 자긍심이 어려있음을 알 수 있고 조희룡의 글에서도 당당한 자기 주체성과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작품의 서발문과 시문을 전면적으로 번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번역문과 주석 등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보다 깊은 글의 이해는 독자의 몫으로 돌리며 번다한 설명을 생략한다. 다만 번역에 앞서 간략한 해제를 두어 작품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계획에 참석한 사람은 30명이지만 배관기와 발문을 쓴 吳慶錫, 崔性學, 金秉善도 시를 남기고 있다.

II. 유숙 〈수계도〉 해제

이 권축은 1853년(철종4) 남산의 老人亭에서 小棠 金奭準(1831~1915)이 주동이 되어 서울의 여향 문인 30명이 계회를 한 것을 기념하여 그림을 그리고 시와 서발문, 그리고 배관기를 함께 편집한 것이다¹. 金正禧(1786~1856)와 錢起(1825~1854)가 쓴 앞 부분의 제목은 떨어져 나간 상태이며, 현재는 김석준이 쓴 ‘修禊圖’ 세 글자만 확인된다. 김석준의 발문대로라면 이 제목 뒤에 嘯堂 金迥洙(1810?~1870?)와 藕船 李尙迪(1804~1865)의 題語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시 없다.

현재 그림의 실물을 보면 유숙의 그림이 앞 부분에 있고 뒤에는 朴鳴朝(?~?)의 서문에 이어 참여한 30명의 시, 그리고 卞鍾運(1790~1866)의 후서, 김석준의 발문, 그리고 李尙迪(1804~1865), 吳慶錫(1831~1879), 崔性學(1842~?), 金秉善(1830~1891) 등 당대 중인 명사들의 배관기가 있다.²

당시 이들이 계회를 연 남산의 남쪽 골짜기는 목계라고 하는 곳인데 李裕元의 『林下筆記』 권25 「續蘭亭會」에 의하면 “哲廟 계축년(1853) 늦봄에 終南山의 墨溪山莊에서 속난정회를 열었다.”라고 하여 당시의 사대부 고관 19명의 인적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신분을 달리한 두 모임이 같은 날 같은 골짜기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처음 노인정에서 만나 모임을 열고 그 근처에 있던 최필문의 원정으로 자리를 옮겨 논 것으로 보인다.³

이들이 모임을 연 계축년 상사일은 1,500년 전에 중국 동진에서 왕희지와 사안 등이 주도한 蘭亭會가 있었고 60년 전에 중인들의 玉溪詩社가 출범한 날이었다. 이들의 시문과 서발문을 보면 그러한 것을 기념하려는 의도와 함께 당시 지식 사회의 관심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유숙이 그린 그림에서 30명의 인물 묘사를 중점적으로 부각한 것은 그러한 의도이며 한



도1. 劉澣, 〈修禊圖〉, 1853년, 지본담채, 30×800cm(그림 부분 28.3×255.5cm), 국립민속박물관(2016년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전시된 모습)

2 김영진, 「『華東唱酬集』 연구: 편찬자 金秉善과 자료의 梗概 소개」, 『한국학논집』 53(2013), pp. 305-338에 인적 사항이 자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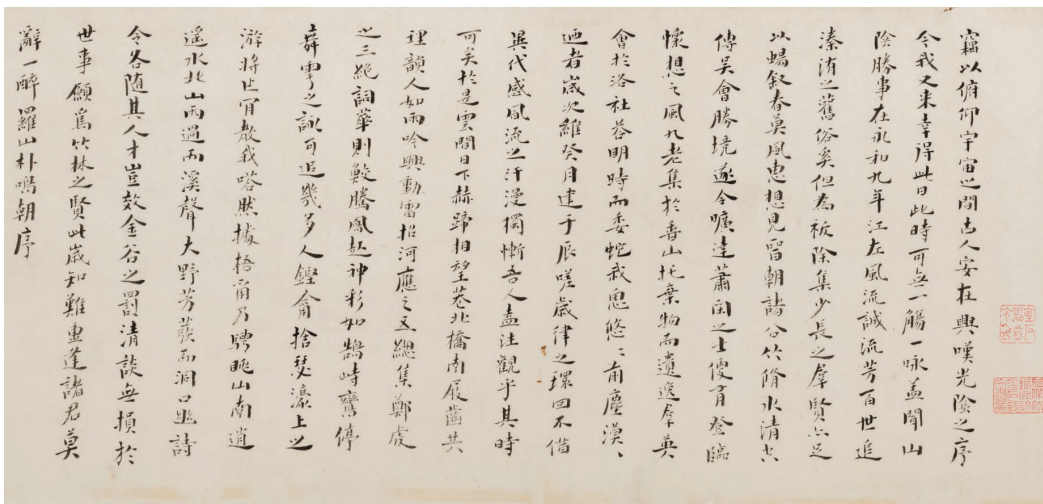
3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p. 203.

명도 빠짐없이 시를 남긴 것, 여러 인장을 찍은 것 역시 그러한 의식의 소산이다^{도2}.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의 역관, 의사 등이 주축이 된 중인들이 문화계의 중심으로 진입한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이다. 이들 중에는 문집을 남긴 이들도 상당수여서 그 작품 성향과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일부의 인물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을 듯하다. 서문과 발문, 그리고 시 전체를 감상해 본다.



도2. 유숙, 〈수계도〉 중 그림 부분

Ⅲ. 유숙 〈수계도〉의 시문과 인장



도3. 유숙, 〈수계도〉 중 羅山 朴鳴朝의 서문 부분

“竊以俯仰宇宙之間，古人安在？興嘆光陰之序，今我又來，幸得此日此時，可無一觴一咏？

蓋聞山陰勝事，在永和九年，江左風流，誠流芳百世，追湊之舊俗，奚但爲祓除？集少長之群賢，亦足以暢敘春莫風惠，想見晉朝諸公，竹脩水清，空傳吳會勝境？遂令曠達蕭閑之士，便有登臨懷想之風，九老集於香山，托棄物而遺逸，群英會於洛社，答明時而委蛇，我思悠悠，前塵漠漠。

迺者歲次維癸，月建于辰，嗟歲律之環回，不借異代，感風流之汗漫，獨慚吾人，盍往觀乎？其時可矣。於是雲間日下，赫蹄相望，巷北橋南，屐齒共理，韻人如雨，吟興動雷，招河應之五總，集鄭度之三絕，詞華則蛟騰鳳起，神采如鵠峙鸞停，舞雩之詠可追，幾多人鏗爾捨瑟，濠上之游將作，肯教我嗒然據梧爾。

乃騁眺山南，逍遙水北，山雨過而溪聲大，野芳發而洞口幽，詩令各隨其人才，豈效金谷之罰，清談無損於世事，願爲竹林之賢，此歲知難重逢，諸君莫辭一醉，羅山朴鳴朝序。”

주문방인: “金石鼎彝令人古(금석문과 옛 청동기는 사람을 옛스럽게 한다)”

주문장방인: “姪保初銅⁴同訥金石詩文書畫(희보 김석준과 초동 방건호는 둘 다 금석, 시문, 서화를 잘하지 못한다)”

삼가 우주를 살펴보건대 고인이 어디에 있는가? 흘러가는 세월에 탄식을 한다. 지금 우리가 또 와서 다행히 이 날 이 때를 만났으니 술 한 잔 마시고 시 한 수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개 들건대 산음의 멋진 모임은 영화 9년(353)에 있었고, 강좌의 풍류⁵는 진실로 백대에 아름다운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데, 진유의 옛 풍속⁶을 추념하면서 어찌 그저 액운을 떨쳐 버리는 것만 할 수 있겠는가? 젊은이와 노장의 여러 현인을 모아 또한 가슴의 회포를 펴볼만 하다. 봄은 무르익고 바람은 부드러우니 진나라의 여러 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으며, 대나무는 길고 물은 맑으니 오나라 모임의 아름다운 경치를 헛되이 전하게 할 것인가. 마침내 활달하고 말쑥한 선비들로 하여금 높은 곳에 올라가 회상하는 풍속이 있게 하였으니, 구로는 향산에서 모여⁷ 등용되지 않고 버려진 인재로 자신을 가탁하여 은거하였고 여러 뛰어난 인재들은 낙사⁸에서 모여 청명한 시대에 화답하면서 유유자적하였다. 그 때를 추념하는 나의 마음 그림기 한량없고 선배들의 모습은 아득하기만 하다.

마침내 계축년(1853, 철종4) 병진월(3월)에, 세월이 끊임없이 흘러가 다른 시대에서 빌려오지 못함을 탄식하고 고인의 풍류는 성대한데 유독 우리들만 그만 못함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니 어찌 가서 봄놀이를

4 ‘姪保’는 金奭準(1831~1915)의 자이고 ‘初銅’은 方建鏞(1826~?)의 호이다.

5 江左의 풍류: 강좌는 江東, 즉 東晉의 재상 謝安을 가리킨다. 『南齊書』, 王儉傳에, “江左風流宰相, 惟有謝安(강좌의 풍류재상으로는 오직 사안이 있을 뿐이다).”이라고 하였다.

6 湊消의 옛 풍속: 춘추 시대 鄭나라 풍속에 상사일이 되면 동쪽으로 흐르는 湊水와 消水 가에서 난초를 잡고 재액을 떨치는 풍속이 있었다. 『古今事文類聚 前集』 권8, 「湊消祓除」.

7 九老是 香山에서 모여: 唐나라의 시인 白居易가 나이가 많고 벼슬에서 물러난 친구 8인과 더불어 洛陽에서 결성한 香山九老會를 가리킨다. 『舊唐書』 권166, 「白居易列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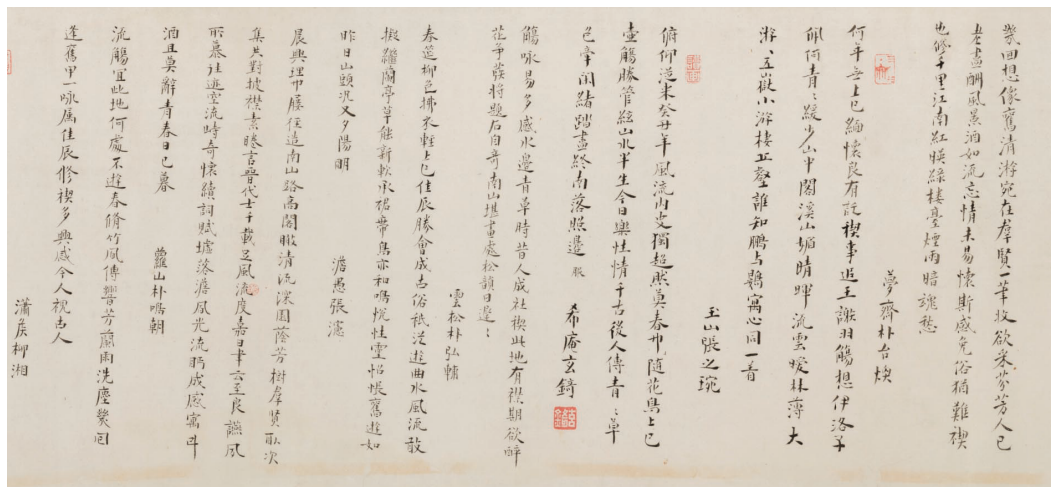
8 洛社: 洛陽耆英會를 말한다. 송나라 文彥博이 낙양에서 당나라 백거이의 향산구회를 본떠서 富弼, 司馬光 등과 만든 모임을 말한다. 『宋史』 권313, 「文彥博列傳」.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때에 맞게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 도성 안에⁹ 편지를 자주 주고받아 골목 북쪽과 다리 남쪽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산에 오를 신발을 준비하고 모이니 시인이 비처럼 많고 시흥이 크게 일어났다. 황하에서 응험을 드러낸 오충귀¹⁰와 같은 인재를 초청하고 삼절로 유명한 정건¹¹과 같은 재사를 모았으니, 글 솜씨는 교룡이 뛰어오르고 봉황이 솟구치는 것과 같고 풍채는 난새와 고니 같은 신령한 새들이 우아하게 우뚝 서 있는 듯하다. 무우에서 시를 읊조리고 돌아오는 것을 추념할 수 있으니 가만히 비파를 놓고 증자처럼 대답할 사람¹²이 몇 사람이 될 것이며, 호상의 유람¹³을 장차 할 것인데 어찌 나로 하여금 탄식을 하면서 오동나무 안석에 기대어 있게 하겠는가.¹⁴

마침내 남산 남쪽을 멀리 조망해보고 한수 북쪽에서 산책하였다. 산에 비가 지나가 계곡물 소리가 요란하고 들에 꽃이 피어나 골짜기 입구가 그윽하였다. 시를 짓는 규칙은 각자 본인의 재능에 맞게 하도록 해야지 어찌 금곡원의 별주¹⁵를 따를 것이며, 청담은 세상일에 손해될 것이 없으니 죽림의 현인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해는 거듭 만나기 어려우니 제군은 한 번 취하는 것을 사양하지 마시라.

나산 박명조¹⁶ 서도3.

-
- 9 서울 도성 안에: 원문은 ‘雲間日下’이다. 雲間과 日下는 모두 서울을 가리키는 말이다. 王勃의 「滕王閣序」에 “望長安於日下, 指吳會於雲間(해 아래에서 장안을 바라보고 구름 사이에서 오회를 가리킨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일하’는 장안을 ‘운간’은 吳會, 즉 會稽의 吳縣을 의미한다. 한편 이보다 앞서 晉나라 陸雲과 荀隱이 張華와 함께 만났는데 장화가 두 사람이 모두 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라 일상적인 말을 못 쓰고 서로 인사하게 하니, 육운이 손을 들면서 “雲間陸士龍(구름 사이의 육사룡입니다).”라고 하자, 순운이 답하기를 “日下荀鳴鶴(해 아래의 순명학입니다).”라고 교묘하게 대응을 한 적이 있어 재주 있는 인재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육운은 고향이 오나라 松江이고 순운의 고향이 당시 서울인 낙양이었다. 『世說新語』, 「排調」.
- 10 五總龜: 박학다식함을 비유한 말이다. 당나라 殷踐猷가 학식이 많아 賀知章이 그를 오충귀라고 일컬었다. 거북이 천 년에 한 번씩 다섯이 함께 모이는데, 물어보는 것마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한다. 『新唐書』 권199, 「殷踐猷列傳」.
- 11 鄭虔: 당 玄宗 때의 문인으로 시서화에 모두 뛰어남 현종으로부터 鄭虔三絶이란 御筆을 받은 일이 있다. 『신당서』 권202, 「鄭虔列」.
- 12 舞雩에서……사람: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자의 소회를 말해 보라고 하자, 다른 제자들은 정치적 포부를 말했다. 그러나 증점은 타고 있던 비파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를 드리는 무우에서 바람을 쐬 뒤, 노래하며 돌아오겠다).”라고 대답하였다. 『論語』, 「先進」.
- 13 濠上的 유람: 호상은 濠라는 강에 있는 다리 위를 말한다. 莊子和 惠子が 濠梁을 거닐면서 물고기가 노니는 것에 관해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 『장자』, 「秋水」.
- 14 탄식을……하겠는가: 실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됨을 말한 것이다. 「장자」, 「德充符」 편에, 장자가 혜자에게 “倚樹而吟, 據槁梧而瞑(나무에 기대 신음소리나 내고 말라버린 오동나무로 만든 안석에 기대 졸거나 하고 있다).”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 15 金谷園의 별주: 금곡원은 진나라의 부호 石崇의 별장이다. 그는 이곳에 빈객을 모아 시부를 짓고 술을 마시며 호탕하게 놀았는데, 정해진 시간에 시를 짓지 못하면 罰酒 三斗를 마시게 했다고 한다. 李白의 「春夜宴桃李園序」에 “如詩不成, 罰依金谷酒數(만약 시를 짓지 못한다면 금곡원의 별주 숫자를 따라 벌을 내리겠다).” 하였다.
- 16 羅山 朴鳴朝: 박명조의 인적 사항은 자세하지 않다. 다만 李琦가 편집한 「朝野詩選」 권3에 박명조의 시 「漣川歸路逢姜秀才口號別與」(5언절구), 「曉行」(5언율시), 「再度麻田塘浦」(7언절구), 「悼亡」(7언절구 4수)이 실려 있는데 동일인으로 보인다. 시의 내용을 보면 박명조는 경기도 漣川에 거주하며 일찍 부인이 작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권속의 5번째로 수록된 시에는 호가 蘿山으로 되어 있는데 「조야시선」도 동일하다. 또 그의 생몰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야시선」이 대략 시인의 생몰년 순서로 편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19세기 중후반에 주로 활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도4. 유숙, 〈수계도〉 서문에 이어 詩가 시작되는 부분

幾回想像舊清游
宛在群賢一筆收
欲采芳人已老
盡酬風景酒如流
忘情未易懷斯感
免俗猶難褻也修
千里江南紅暎綠
樓臺烟雨暗魂愁
夢齋 朴台煥

何年無上已
緬懷良有託
禊事追王謝
羽觴想伊洛

몇 번이나 옛날의 맑은 유람 상상하였나
여러 현인들 완연히 붓끝으로 그려내었네
향기로운 꽃 따러 하나 사람 이미 늙었고
풍경을 다 읊자니 술을 냇물처럼 마시네
희로애락 쉬이 못 떨어져 이런 감정 품고
세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수계를 하네
천리 강남 붉은 꽃 녹음을 비추는데
가랑비 속 누대에서 남 몰래 근심에 젖네
몽재 박태환

어느 해인들 삼진날이 없으리오마는
진실로 마음 불일 아득한 회포가 있네
수계하는 일에서 왕씨, 사씨들 추억하고¹⁷
술잔을 돌리며 이수와 낙수를 생각하네¹⁸

17 수계하는……추억하고: 동진 353년에 王羲之가 주최한 난정 모임에 총 42명이 참석하였는데 참석자중 대표 인물이 右將軍會稽內史 왕희지와 司徒 사안뿐만 아니라 참석자 중에 왕씨와 사씨 성이 많았다.

18 술잔을……생각하네: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가 노년에 친구 8인과 더불어 결성한 향산구로회를 가리킨다. 이 모임 장소로 주로 향산의 石樓와 履道坊에 있던 백거이의 정원이 사용되었는데 향산 앞에 洛水가 흐르고 백거이 집 앞에 伊水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子佩何青青
緩步山中閣
溪山媚晴暉
流雲暖林薄
大游棲五嶽
小游棲丘壑
誰知鵬與鷗
寓心同一著²⁰
玉山 張之琬

주문방인: “乾坤一草亭(천지간에 초가 정자 한 채)”²²

그대의 패옥은 어쩌면 그리도 푸른가¹⁹
산중의 누각을 천천히 거닐어 보네
산과 계곡은 맑은 햇살 속에 곱고
떠가는 구름은 성긴 숲에 걸려있네
큰 유람은 오악을 유람하는 것이고
작은 유람은 산수 간에 노니는 것
어느 누가 봉새와 매추라기가
품은 뜻이 같다는 것을 알겠는가
옥산 장지완²¹

俯仰從來癸丑年
風流內史獨超然
暮春巾服隨花鳥
上巳壺觴勝管絃
山水半生今日樂
性情千古後人傳
青青草色牽閑緒
踏盡終南落照邊
希庵 玄鎬

백문방인: “讀畫(그림의 뜻을 읽는다)”

백문방인: “玄鎬”

그동안의 계축년을 살펴보니
왕희지의 풍류가 홀로 초탈하였네
늦봄에 의관 차림 꽃과 새를 따르고
상사일의 술자리가 음악보다 낫구나
반생의 산수지락 오늘에 즐기고
천고의 성정은 후인들이 전하네
푸르고 푸른 풀빛 한정을 끌어내어
낙조 어린 남산을 남김없이 다녀보네
희암 현기²³

19 그대의……푸른가: 이날 모인 사람이 공부하는 선비임을 은유한 말이다. 『시경』, 『鄭風子衿』에, “青青子衿 悠悠我心(푸르고 푸른 그대의 옷깃이여, 아득한 나의 마음이로다).”라 하였고, 또 “青青子佩 悠悠我思(푸르고 푸른 그대의 패옥이여, 아득한 나의 그리움이로다).”라고 한데서 온 말이다. 유생들의 모임을 衿佩之會, 유생들의 명부를 靑衿錄이라 한다.

20 이 시는 임형택 편, 『閭巷文學叢書』(서울: 여강출판사, 1991)에 실린 『枕雨堂集』 권1에 「癸丑重修契于老人亭」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21 張之琬(1806~1858): 본관은 仁同, 자는 汝瑛, 호는 枕雨堂 또는 斐然이다. 1825년(순조25)에 律科에 급제하였고 斐然詩社를 주도하였다. 저서에 『침우당집』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제5책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에서 『침우당집』 해제 참조.

22 杜甫의 시 「暮春題瀼西新賃草屋」 제3수에 “身世雙蓬鬢, 乾坤一草亭(쑤과 같은 두 귀밑머리를 한 이내 신세, 의지할 것이라곤 천지에 이 초옥 하나 뿐).”이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3 玄鎬(1809~1860): 본관은 川寧, 자는 信汝, 호는 希庵이다. 한어 역과에 합격하였으며 김석준이 시 제자이다. 『大東詩選』에 9수의 시가 전한다. 저서에 『希庵詩略』이 있다. 임형택 편, 앞의 책(1991) 해제 참조.

觴詠易多感
水邊青草時
昔人成社禩
此地有襟期
欲醉花爭發
將題石自奇
南山堪畫處
松韻日遲遲
雲松 朴弘輔

술과 시로 다감해지기 쉬우니
물가에 봄풀 푸를 때이지
옛 사람은 계사 모임 만들고
이곳에는 마음의 기약 있네
취하려 하니 꽃이 다투어 피고
글 쓰려니 돌이 절로 기이하네
그림으로 그릴 만한 남산
솔바람 불고 해는 더디 가네
운송 박홍보

春筵柳色拂衣輕
上巳佳辰勝會成
古俗祇從遊曲水
風流敢擬繼蘭亭
草能新軟承裙帶
鳥亦和鳴悅性靈
悵悵舊遊如昨日
山頭汎汎夕陽明
澹愚 張瀾

봄 연회에 버드나무 가벼운 옷 스치니
상사일 좋은 때 멋진 모임 열렸구나
옛 풍속이라 다만 곡수 모임에서 종유하니
풍류가 감히 난정 모임을 이었다 할 만하네
풀은 연하게 새로 돌아 치마끈을 할 만하고
새도 화답해 울어 성령을 기뻐하네
슬프구나, 옛 유람이 어제와 같은데
산꼭대기에 뜬 석양이 또 밝게 비추네
담우 장현

晨興理巾屨
徑造南山路
高閣瞰清流
深園蔭芳樹
群賢取次集
共對披襟素
睠言晉代士
千載足風度²⁴
嘉日聿云至
良讌夙所慕
往迹空流峙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차려입고
오솔길로 남산 길에 이르렀네
높은 누각은 맑은 냇물을 내려다보고
깊은 정원엔 꽃과 나무가 무성하구나
여러 현인들이 차례로 모여서
함께 마주해 흥금을 털어놓네
돌아보면 동진 시대 선비들
천고에 풍도가 넉넉하였지
아름다운 날이 돌아왔으니
좋은 연회 일찍부터 사모하였네
옛 자취는 산천에 보이지 않아도

24 ‘度’ 앞에 ‘流’자가 적혀 있는데 譌자 인장을 찍어 오자임을 표시하였다.

奇懷續詞賦

墟落瀟風光

流眄成感寓

斗酒且莫辭

青春日已暮

蘿山 朴鳴朝

원형주문인: “謫”(잘못된 글자이다)

특별한 회포는 사부에 이어졌네

촌락의 풍광이 화창하여

바라보매 감회가 일어나네

말술을 사양하지 마시라

푸른 봄도 이미 저물어 가는데

나산 박명조

流觴宜此地

何處不遊春

脩竹風傳響

芳蘭雨洗塵

幾回逢舊甲

一咏屬佳辰

修契多興感

今人視古人

瀟侯 柳湘

유상곡수 하기에는 이 곳이 알맞구나

어느 곳인들 봄놀이 하지 않으랴만

바람은 긴 대나무의 소리를 전하고

비는 난초 꽃의 먼지를 씻어내었네

몇 번이나 옛날 계축년을 만났을까

마침 좋은 날 맞아 시 한수 읊어보네

수계를 하니 감흥이 많기도 한데

지금 사람 옛날 사람 생각해 보네

소후 유상도⁴

正值名辰擬袞除

莫春天氣雨晴初

群賢遠溯蘭亭禊

陳迹猶傳逸少書

恨不同時多歲月

依然想見只丘墟

山陰會後終南下

我輩鍾情一悵如

愚堂 趙述曾

주문 장방인: “研頑(둔한 벼루)”²⁶

좋은 명절 만나 제액 떨치려 하니

늦봄의 날씨 비 그쳐 금방 개었네

여러 현인들 멀리 난정 수계 회상하니

묵은 자취 일소의 글씨에나마 전해지네

세월이 많이 지나 시대 달라 한스러운데

아련히 상상하면 폐허만 남아 있겠지

산음의 모임 뒤 서울 중남산²⁵ 아래서

우리들은 정이 많아 슬프기 그지없네

우당 조술중

25 終南山: 木覓山, 즉 남산의 별칭이다. 당나라 장안 맞은 편 진령 산맥을 중남산이라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26 研頑: 앞의 ‘研’ 자는 ‘硯’의 의미이다. 이 글귀는 송나라 唐庚의 『家藏古硯銘』에서 온 듯하다. 그 글에 “吾於是, 得養生焉, 以鈍爲體, 以靜爲用(나는 벼루에서 양생술을 얻었으니 둔함을 체로 삼고 고요함을 용으로 삼는다).”는 대목이 있다. 송나라 陸游의 『老學庵筆記』에 송나라 황제가 단계연 위에 ‘頑’자 한 글자를 쓴 것을 소개하면서 “唐有準敕惡詩, 今又有準敕頑硯耶?(당나라 때는 황제의 말에 따른 악시가 있더니 지금은 또 황제의 글씨에 따른 완연이 있는가?)”라고 하였는데, 申緯의 『警修堂全藁』 26책, 『覆瓿集二』에도 실려 있다. 악시 고사는 당나라 德宗이 崔叔清의 시를 평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名亭睠芳春
况乃修禊時
群公盡傾蓋
招燕酬素期
華館挹奇觀
嘉席延多儀
蘭芬揚光風
苔色涵晴漪
雖微絲與竹
清興良足怡
達者解其會
浩歌寧須辭
愚谿 柳學永
주문방인: “愚谿”
백문방인: “學永”

이름난 정자에서 꽃을 감상하는 봄
더욱이 수계를 하는 때이니 오죽하라
여러 공자들은 모두 일산을 쓰고
잔치에 초대받아 마음 열고 얘기하네
화려한 집에서 기이한 경관 바라보고
좋은 연석에선 다채로운 의물 펼쳤네
난초 향기는 맑은 바람에 떠돌고
고운 이끼는 맑은 물결에 잠겨 있네
현악기 관악기 악기 연주 없다 해도
맑은 흥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네
통달한 사람은 그 이치를 아니²⁷
호탕한 노래 어찌 사양할 것인가
우계 유학영

佳處終南雨洗塵
群賢修契秉蘭辰
名山讀書憑遐矚
曲水流觴憶古人
百歲難期唯盛事
千秋未了是清因
幾回癸丑逢今日
依舊鶯花屬暮春
古篆 韓鎮夏

아름다운 종남산 비가 먼지를 씻어내니
난초잡는 좋은 날 여러 현인 수계하네
명산에서 독서하며 멀리 바라보고
유상곡수 놀이하며 고인을 추억하네
백대에 이런 성사 기약하기 어렵고
천추에 이 맑은 인연 끝나지 않았네
계축이 몇 번 돌아 오늘을 만났나
변함없는 앵두꽃 지금이 바로 늦 봄
고전 한진하

주문장방인: “誰可怜你十季窓下無人間(그대가 십년 동안 창 아래서 공부할 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을 누가 가련하게 여기겠는가)”²⁸

27 통달한……아니: 陶淵明의 「飲酒」에 “達人解其會, 逝將不復疑(통달한 사람은 그 이치를 알아 떠나가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8 誰可……人間: 이 말은 본래 『歸潛志』 권7에 “十年窓下無人間, 一舉成名天下知(십년 동안 창 아래서 공부할 땐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더니, 한 번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이 나니 천하 사람이 다 안다).”라고 한 말을 활용한 것이다. 『增廣賢文』에도 보인다. 십년 동안 창 아래서 공부한단 말은 벼슬하기 전을 의미한다. 유사한 말에 “十年江上無人間(십년 동안 강가에 사니 아는 사람이 없다).” 등이 있다.

名園修契日
捷徑在終南
風流繼晉代
佳節又三三
惠山 劉淑

명원에서 수계하는 날
지름길 종남산에 있네
풍류는 진대를 이었고
가절은 또 삼월 삼짇날
혜산 유숙

群賢起我病吟身
到及東風上巳辰
十載幸逢修禊日
一觴宜謝賦詩人
如今花鳥牽情甚
從此溪山入夢頻
王謝清遊今又續
不殊風景暢懷新
菊山 趙基完

여러 현인 몸져누운 날 일으키니
봄바람 부는 상사일이 되었구나
10년 만에 다행히도 수계일 만나니
한 잔 술로 시 지은 분께 사례해야지
지금 꽃과 새는 감정 촉발 자심하니
이로부터 산수가 자주 꿈에 보이겠네
왕씨 사씨 맑은 유람²⁹ 지금 또 이으니
새 회포 펴기에 풍경이 다르지 않네
국산 조기완

太歲在癸丑
暮春日上巳
雅集修契事
紫閣翠陰裏
羣彦流流至
文采照清池
當筵盡陰何
轟飲亦賀李
岸幘瞻奇巒
飛觴臨曲水
芳芷敷綠葉
襟袂發紅蓂

태세는 계축년
모춘의 상사일에
모여서 수계하는 날
붉은 누각 푸른 녹음 속
여러 선비 차례로 이르니
멋진 풍채 맑은 못에 비치네
연회 자리에는 음갱, 하손 다 모였고³⁰
통음으로는 역시 하지장과 이백일세³¹
두건 젖혀쓰고 산봉우리 바라보고
술잔 권하며 굽진 물가에 앉았어라
향초는 푸른 잎을 펼쳐내고
꽃들은 붉은 꽃잎 피워내네

29 왕씨……유람: 참여자 명단 가장 앞에 있는 왕희지, 사안 등이 참여했던 蘭亭修禊를 가리킨다.

30 연회……모였고: 南朝 梁나라의 시인 何遜과 陳나라의 시인 陰鏗은 모두 시에 뛰어났는데 병칭하여 陰何라 한다. 두보의 「解悶」 시에 “頗學陰何苦用心(시 짓느라 고심한 음하를 자못 배웠노라).”이라고 하였다.

31 통음으로는……이백일세: 둘 다 술을 매우 좋아하여 하지장은 일찍이 四明狂客이라 自號하였고, 이백은 평소 自他가 모두 狂客, 狂夫, 佯狂 등으로 일컬었다.

娛樂非絲竹
藻華散文綺
盛事續蘭亭
千載豈專美
右軍曠達人
感興殊未已
俯仰今視昔
茲會非遇尔
芝山 方漢翼

백문방인: “百八椽(108개의 서까래로 지은 집)³²”

즐기는 게 음악은 아니지만
좋은 시문 비단에 쓰고 있네
성대한 일 난정 모임 이으니
천고에 어찌 난정만 유명하랴
왕우군은 광달한 사람이라
감흥이 자못 다하지 않았네
오늘 옛날을 보며 생각하니
이 모임이 우연이 아니구나
지산 방한익

紅綠繁華溢眼中
芳芷烟雨鎖空濛
良辰易得詩人感
無限春光惱煞農
錦谿 崔性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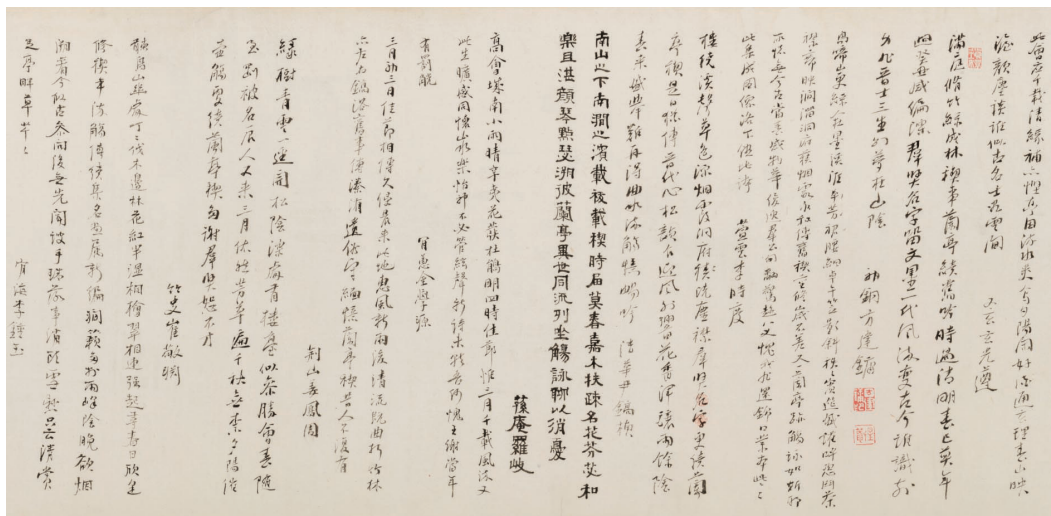
흐드러진 봄 풍경 눈앞에 넘치고
향초에 가랑비 하늘 온통 부슬부슬
좋은 때라 시인의 감회 쉬 일거니
무한한 봄 풍광 내 마음 괴롭히네
금계 최성효

上巳幾癸丑
千載怯莫墟
伊昔蘭亭會
此年此月初
欲鑄金人像
恨無黃金儲
詩人好師古
秉蘭來祓除
今古雖不及
氣味正相如
碧山 朴會朝

계축년 상사일 몇 번이런가
천년의 세월 헤아릴 길 없네
옛날에는 난정회요
올해는 이달 초라
금인상³³을 주조하고 싶지만
저축한 황금이 없는 게 한이라
시인은 옛날을 본받기 좋아해
난초 잡고 와서 액운을 떨치네
지금과 옛날이 같지 않지만
취향은 서로 꼭 같구나
벽산 박회조

32 百八椽: 도장의 위치로 볼 때 이 시를 지은 芝山 方漢翼의 집 이름이자 호가 아닐까 한다. 여항 시인 金鎮恒(18세기 후반~19세기 초)의 『麋山全集』에 金拓의 주거지에 대해서 쓴 「百八椽記」를 참조해 볼 때 이 인장도 집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百八’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번뇌 수효를 말하는 듯하다.

33 金人像: 쇠나 구리로 만든 사람 모형의 상으로 흔히 금인이라 한다. 周나라 서울 后稷의 사당에 설치한 적이 있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병기를 녹여 제작한 적이 있다. 여기서는 난정 수계에 참석한 명현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도5. 유숙, 〈수계도〉중 趙熙龍이 홍백매도를 그려준 遜菴 羅岐의 시가 있는 부분. 예서체로 적혀있어 다른 시들과 대비된다.

此會應千載
淸緣亦慳
亭因流水爽
人與夕陽閑
好酒通玄理
春山映渥顏
瑩談誰似古
名士盡雲間
又玄 玄光遵

이 계회 천년 만에 호응하니
맑은 인연 이어가기 드무네
정자는 유수로 인해 상쾌하고
사람은 석양과 함께 한가하네
좋은 술로 현묘한 도와 통하고
봄 산은 붉은 얼굴을 비추네
청담은 누가 옛 사람과 같을까
도성의 명사들 다 모였는데³⁴
우현 현광준

滿庭脩竹綠成林
禊事蘭亭續舊吟
時過清明春已莫
年迴癸丑感偏深
群賢名字留文墨
一代風流變古今
誰識前身非晉士

뜰 가득 긴 대는 푸른 숲을 이루었고
수계하던 난정의 옛 시회를 계승하네
청명을 지난 시절 봄은 이미 무르익고
옛 계축년 아득타 감회는 깊기만 하네
여러 현인들 이름은 문묵에 남아 있고
당대의 풍류는 고금에 따라 변해가네
이 몸 전신이 진대의 선비 아닌 줄 누가 알리

34 도성의……모였는데: 원문의 ‘雲間’은 오나라 회계를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서울 도성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9) 참조.

三生幻夢在山陰

삼생³⁵의 환몽 속에 산음에 있었던 것을

初銅 方建鏞

초동 반건용

백문장방인: “小琅嬛”³⁶

백문숙 주문방인: “方建鏞印”

주문방인: “惺菴(정신이 깨어 있는 집)”³⁷

鳥啼山更綠

새가 울어 산이 더욱 푸르네

人在墨溪涯

사람은 묵계³⁸의 물가에 있네

芳草³⁹裙腰細

향기로운 풀은 치마끈처럼 가늘고

卓午笠影斜

한낮이라 갓 그림자 비스듬하네

秩秩賓筵盛

질서 있는 접빈 연회 성대하거니

誰呼沍瀾茶

누가 불러 기분 좋게 차 맛 평하나

襟帶映澗溜

띠처럼 두른 산 계곡물에 비치고

洞庭積煙霞

동정호 같은 강 안개가 쌓여 있네

永和傳舊禊

영화 계축년에 옛 계회 전했는데

重修歲不差

다시 연 해도 계축년으로 꼭 같고

又一蘭亭蹟

또 하나 난정 모임 옛 모습도

觴詠如斯耶

음주와 작시가 이와 같으리라

所懷無今古

소회는 고금의 차이가 없으니

當春感物華

봄을 맞아 만물에 감회가 있네

俊逸群公間

준일한 여러 공자들 사이에서

翻驚趁八叉

놀라며 시재 있는 분⁴⁰들을 따르네

35 三生: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前生·現生·後生을 이른다.

36 小琅嬛: 琅嬛은 琅環이라고도 한다. 낭현은 전설상의 신선이 사는 福地로, 천제가 서적을 보관하는 곳이라 한다. 그러므로 '소낭환'은 方建鏞이 귀한 책을 모아 놓은 자신의 서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37 惺菴: 방건용의 서재에 붙인 이름으로 또 다른 호로 보인다.

38 默溪: 당시 남산의 남쪽에 있던 계곡 이름이다. 羅岐(1828~1874)의 시에 '南澗'이라 한 것이 이 곳이다.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 권25, 「續蘭亭會」에 “哲廟癸丑莫春, 設蘭亭會於終南之墨溪山莊(철묘 계축년(1853, 철종4) 늦 봄에 종남산의 묵계산장에서 속난정회를 열었다).”라고 하면서 함께 모인 사람의 호와 이름을 19명 나열하였는데 대개 고관과 사대부들이었다. 이를 보면 신분을 달리한 두 모임이 같은 날 부근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39 芳草: 원문은 '草芳'인데 우측에 글자를 서로 바꾸라는 교정 부호가 있다.

40 詩才 있는 분들: 원문은 '八叉'이다. 당나라 시인 溫庭筠이 시를 민첩하게 잘 지었는데, 그가 손으로 깎지를 여덟 번 끼는 동안 여덟 수의 시를 지은 이래 그를 溫八叉라고 불렀다는 고사가 있다. 『北夢瑣言』 권4.

愧我非還錦
口業本些些
此集成圖像
洛下儘堪誇
萱雲 李時度

부끄럽구나 나는 재주가 준 게 아니라⁴¹
글재주가 본래 변변찮다네
이 아집 도상으로 완성하면
도성 안에 참으로 자랑거리
환운 이시도

樓繞溪聲草色深
煙霞洞府洗⁴²塵襟
群賢更⁴³續蘭亭禊
是日猶傳晉代心
松韻乍迎風外響
花香渾釀雨餘陰
春來盛舉難再得
曲水流觴憶暢吟
清華 尹鎬楨
주문원인: “謫⁴⁴” 2顆

누대 둘러 시냇물 소리 풀빛도 짙은데
안개 낀 신선 세상 세속 마음 씻어주네
여러 현인 난정 수계 다시 이으니
이날에 오히려 진대의 마음 전해지네
솔바람 소리는 바람결에 잠깐 들리고
꽃향기는 비온 그늘에서 뒤섞여드네
이 봄의 성대한 일 다시 얻기 어려우니
유상곡수 연회에서 시 읊은 일 추억하리라
청화 윤호정

南山之下
南澗之濱
載袂載褰
時屆暮春
嘉木扶疎
名花芬苾
和樂且湛
顏琴點瑟
溯彼蘭亭
異世同流
列坐觴詠

남산의 아래
남쪽 계곡 물가에서
액운을 떨고 수계를 하니
계절은 늦봄에 이르렀네
아름다운 나무 무성하고
이름난 꽃은 향기롭네
화락하고 또 즐거우니
안연의 금과 증점의 비파
저 난정을 추억하니
시대는 달라도 풍류는 같아라
열 지어 앉아 술 마시고 시 읊으며

41 재주가 준 게 아니라: 원문은 '非還錦'이다. 文才가 이제 바닥이 났다는 뜻의 謙辭이다. 남조의 문장가 江淹이 꿈속에서 張景陽에게 비단을 돌려준 뒤로는 글 짓는 실력이 날로 퇴보하였다는 고사가 전한다. 『南史』 권59, 「江淹列傳」.

42 '洗' 자 앞에 '積'자가 있는데 그 우측에 점 2개를 찍어 오자임을 표시하였다.

43 '更' 자 앞에 '名字' 2글자가 있는데 '謫'자 인장을 찍어 오자임을 표시하였다.

44 謫: 각주 23) 참조.

聊以消憂
遜菴 羅岐

애로라지 근심을 녹이네
손암 나기⁴⁵

高會城南小雨晴
辛夷花發杜鵑明
四時佳節惟三月
千載風流又此生
曠感同懷山水樂
怡神不必管絃聲
新詩未就吾何愧
王謝當年有罰觥
肯蕙 金學源

성 남쪽 좋은 모임 가랑비 그쳐 맑은데
목련꽃 피어나고 진달래도 선명하네
삼월은 사시의 가절이거니와
이내 생애 또 천고의 풍류를 누리네
산수의 즐거움은 먼 옛 사람과 똑 같고
굳이 음악이 아니라도 마음이 기쁘다네
시를 못 지으면 내 얼마나 부끄러울까
왕희지, 사안 당시에는 별주가 있었다지
궁혜 김학원

三月初三日
佳節相傳久
晨來此地
惠風新雨後
清流既曲折
竹林亦左右
鎬洛舊事傳
溱洧遺俗守
緬憶蘭亭禊
昔人不復有
荊山 姜鳳周

삼월 초사흘
좋은 명절 예부터 전해오네
첫 새벽에 이곳에 오니
비 그치고 살랑살랑 바람 부네
맑은 물이 굽이도는데다
대숲도 좌우를 둘러싸 있네
호경과 낙양엔 옛 일이 전해지고⁴⁶
진수와 유수에도 풍속을 지킨다지⁴⁷
난정의 수계를 추억해 보나
옛 사람은 가고 다시 없네
형산 강봉주

45 羅岐: 본관은 나주, 자는蓬萊, 호는遜菴이다. 경아전 가문 출신으로 평생 시작에 주력하였으며 저서에『碧梧堂遺稿』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형택 편, 앞의 책(1991) 제7책 해제 참조.

46 호경과……전해지고: 『周禮』에 “女巫掌歲時, 祓除釁浴(여자 무당이 세시를 관장하여 푸닥거리를 해서 재앙을 떨쳐내니, 향을 몸에 바르고 제사를 지내어 몸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歲時祓除, 如今三月上巳如水上之類(세시 풍속에 푸닥거리를 하여 재앙을 떨쳐내는 것은 지금의 3월 상사일에 물가에 가는 일과 같다).” 하였다. 晉武帝가 3월 삼짇날 굽이진 개울에서 술잔을 띄우고 노는 모임의 유래를 묻자, 束皙이 “昔周公卜成洛邑, 因流水以泛酒, 故逸詩云, ‘羽觴隨波流’(옛날에 주공이 낙읍에 성을 쌓고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웠으므로 『일시』에 ‘술잔은 물결을 따라 흐르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주례』 권26, 「春官宗伯」 「女巫」; 『晉書』 권51, 「束皙列傳」; 『荊楚歲時記』.

47 진수와……지킨다지: 정나라 풍속에 삼월 上巳일이 되면 溱水와 洧水 가에서 澤蘭을 뜯어 不祥한 것을 떨어버렸다고 한다. 『詩經』, 「鄭風 溱洧」.

綠樹青雲一逕開
松陰深處有樓臺
似參勝會春隨至
剛被名辰人又來
三月依然芳草遍
千秋無奈夕陽催
壺觴更續蘭亭禊
多謝群賢恕不才
竹史 崔敬淵

푸른 숲 파란 구름 오솔길 하나 나 있는데
솔 그늘 깊은 곳에 누대가 서 있네
좋은 모임에 참석하려는 듯 봄이 따라 이르고
막 좋은 때를 만났는데 사람 또한 찾아오네
삼월 되자 예전처럼 향초들이 가득한데
천추에 석양이 재촉하니 어찌한단 말가
술자리 열어 난정수계 다시 이으니
여러 현인 재주 없는 날 용서해서 고맙네
죽사 최경연

聽鳥山幽處
丁丁伐木邊
林花紅半濕
桐檜翠相連
強起尋春日
欣逢修禊年
流觴傳續集
名畫屬新編
澗籟多於雨
峰陰晚欲煙
溯看今似古
參問後無先
聞謗手珠落

산 깊은 곳 새 소리 들리고
나무 베는 옆 찡찡 울리네⁴⁸
숲의 꽃은 붉은 색이 반나마 젖었고
오동나무 회나무 싱싱하게 우거졌네
봄 경치 구경하는 날 힘써 일어나
수계하던 계축년 기쁘게 맞이하네
유상곡수 시는 속집으로 전하고
뛰어난 그림은 새 작품 부탁하네⁴⁹
 시내 물소리는 빗소리보다 크고
산그늘엔 저물녘 안개가 피어날듯
거슬러 보면 지금이 옛날과 같고
도를 묻는 건 선후의 차례가 없네⁵⁰
염주가 떨어져야 들을 게 적고

48 산……울리네: 친구에 대한 우정을 표현한 대목이다. 여기서 나무 베는 소리는 빗을 찾는 새 소리를 흥기하기 위해 차용한 것이다. 『시경』, 『小雅 伐木』에 “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 嚶其鳴矣, 求其友聲(나무 찍는 소리 찡찡 울리고, 새들은 재잘재잘 즐겁게 노래하네. 깊은 골에서 홀쩍 날아서는, 높은 나무 위로 자리를 옮겨 앉네. 재잘재잘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이여, 서로를 빗을 구하는 소리로다).”라고 하였고, 주자의 주에 “以伐木之丁丁, 興鳥鳴之嚶嚶, 而言鳥之求友, 遂以鳥之求友, 喻人之不可無友也(찡찡 벌목을 하는 소리로 재잘거리는 새 소리를 떠올리게 하여 새가 빗을 찾음을 말하였고, 마침내 빗을 찾는 새 소리를 통해 사람이 벗이 없어서는 안 됨을 비유하였다).”라고 하였다. 『毛詩序』에서는 이 시를 “燕朋友故舊也(붕우와 고구를 연향한 시이다).”라 하였다.

49 유상곡수……부탁하네: 왕희지 등이 蘭亭의 流觴曲水 때에 시를 지은 것을 계승해 오늘 시를 지어 편집하고, 文徵明의 〈蘭亭修禊圖〉 등을 계승해 劉淑이 새로 그림을 그린다는 의미이다.

50 거슬러……없네: 후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옛날이므로 지금과 옛날이 같다고 하였고 진리를 깨치는 데는 나이나 정해진 단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事消頭雪懸
只云清賞足
亭畔草芊芊
肯海 李鍾玉

머리가 희어져야 일이 줄어드네⁵¹
다만 맑은 감상이면 족하거니
정자 주변 풀은 무성도 하네
궁해 이종옥^{도5}

昔聞修契事
今見修契儀
維歲在癸丑
巾服莫春時
天氣清且朗
林竹又葳蕤
少長集群賢
觴詠任所爲
亦有後視今
騁懷幾人悲
桐齋 安載興

예전에 수계의 일 들었더니
오늘 수계하는 위의를 보네
세차는 계축년
의관 차려입은 모춘 시절
공기도 맑고 날씨도 맑은데
숲과 대나무도 무성하게 우거졌네
젊고 노성한 여러 현자들 모여서
음주와 작시 자신의 뜻대로 하네
또한 훗날 지금을 보는 자 있으리니
몇 사람이나 회포를 펴며 슬퍼할까
동재 안재홍

千載重修三月禊
壺觴盡日笑談溫
山陰盛會前塵在
稷下諸生我輩存
遐想不離雲水窟
夕陽偏惱古今魂
鼠須蠶繭俱徒爾

천년 만에 삼월 수계 다시 행하니
종일 술 마시며 온화하게 담소하네
산음의 성대한 모임 예전에 있었고
직하의 제생⁵²으론 우리들이 있네
마음은 멀리 운수굴⁵³을 떠나지 않고
석양에 고금의 사념으로 몹시 괴롭네
수서필과 잠견지⁵⁴ 다 부질없어라

-
- 51 염주가……줄어드네: 이 말의 전고는 자세하지 않다. 염주가 떨어지는 것은 승려의 죽음을 의미하고 머리가 희어진다는 것은 늙음을 말하니, 승려가 죽기 전까지 공부할 게 많고 사람이 늙기 전에는 할 일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 52 稷下の 제생: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뜻한다. '직하'는 전국 시대齊나라의 도성 서문인稷門 부근을 가리키던 말이다. 제나라 威王과 宣王이 이곳에 學宮을 짓고 선비들을 우대하였으므로 騁衍·淳于髡 등 훌륭한 학자들이 이곳에 모여 학문을 연구하였다.
- 53 雲水窟: 은자나 출가한 사람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雲水'는 '行雲流水'의 준말로 세속을 떠나 정처없이 다니는 것이나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
- 54 鼠鬚筆과 蠶繭紙: 왕희지가 「蘭亭序」를 쓸 때 잠견지에 서수필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잠견지는 누에고치로 만든 종이이고 서수필은 쥐의 수염으로 만든 붓이다.

怱悵當時王右軍

小棠 金奩準

주문인: “金”

주문방인: “奩準”

주문장방인: “如印印泥(도장을 인주에 찍듯이 글씨를 쓴다)⁵⁵”

당시의 왕우군이 너무도 그림구나

소당 김석준

怱輒代謝疾於走

千古歷歷一回首

洛邑華林世已邈

沿俗令節猶不負

觴詠遊春春欲暮

我思悠悠慷慨久

畫裏名亭集小長

年光何似永和九

是日和暢天兼朗

脩竹清流映左右

動人風流非王謝

況復醉墨愧視後

秉蘭強隨群賢至

效顰還覺貌自醜

紛繽春服南澗濱

幾人祓除不詳否

塵觥罰渾漫興

敢與先輩論不朽

歸路又見夕陽催

끝없이 흐르는 세월 달리는 것보다 빠른데

한 번 고개 돌리면 천고 세월 뚜렷이 보이네

낙양의 화림원⁵⁶은 시대가 이미 아득하지만

명절 풍속 이어와 아직도 저버리지 않았네

저물어가는 봄에 시와 술로 봄놀이하니

나의 마음 끝없어라 오랫동안 강개에 젖네

그림 같은 정자에 젊은이와 노장들 다 모였거니

봄빛은 어찌먼 그리도 영화 구년과 비슷할까

이날 따뜻하고 날씨까지 맑은데

긴 대나무 맑은 계류 좌우를 비추네

감동적인 왕희지 사안의 풍류도 아닌데다

취중에 쓴 시 후인 보기 부끄러워라

난초 잡고 억지로 여러 현인 따라 와서

흥내 내다 도리어 내 추한 모습 깨달았네

남쪽 계곡 가에 봄 옷 입은 선비들 부산한데

몇 사람이나 상스럽지 않은 재액 떨쳤을까

청담과⁵⁷ 별주로 다들 흥이 나 시 짓는데

감히 선배들과 작품의 우열을 논할 건가

돌아가는 길에 또 석양이 재촉하니

55 如印印泥: 이 말은 당나라 서예가 褚遂良이 한 말이다. 저수량은 “用筆當如印印泥, 如錐畫沙, 使其藏鋒, 畫乃沈著, 當其用鋒, 常欲透過紙背(붓을 움직일 때는 도장을 인주에 찍듯이, 송곳으로 모래에 그림을 그리듯이 하여, 그 붓 끝을 감추고 써야 필획이 침착해진다. 붓 끝을 움직일 때는 항상 종이 뒤로 뚫고 나오듯이 해야 한다).” 『御定佩文齋書畫譜』 卷5, 『唐褚遂良論書』. 이 말은 이우원의 『嘉梧藥略』과 金正喜(1786~1856)의 『阮堂集』 등에도 보인다.

56 華林園: 동한 때 芳林苑으로 만들었으나 위나라 때 화림원으로 고쳤다. 瑤華宮, 景陽山, 天淵池 등 승경이 있다. 화림원은 규모가 매우 크며 후대 남북조 시대의 정원 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57 청담과: 원문은 ‘塵’로 뒤에 글자가 한 자 빠져 있다. 앞의 玄光遵의 시에 ‘塵談’이라는 표현이 보이는 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글자일 것으로 추정하여 번역하였다.

俯仰山陰幾癸丑
石南 尹東龜

생각해 보면 산음에 몇 번의 계축년 지났을까
석남 윤동귀

吾遊湖思永和年
修契風流亦舊緣
翰墨留香千古在
吟觴爲樂半生全
春深小杏紅飛地
雨歇垂楊綠漫天
佳會只憐難再得
好將詩句流來傳
香史 秦喜鵬

나의 유람 영화 계축년 추억하니
수계 풍류도 또한 묵은 인연이라
필묵에 어린 향기 천고에 남아 있고
시주로 즐긴 인생 반생이 온전하네
봄이 깊어 살구꽃은 땅에 붉게 흩날리고
비가 그쳐 수양버들 하늘 가득 푸르구나
아름다운 이 모임 다시 얻기 어려우니
시구를 잘 지어 후세에 전하시길
향사 진희봉

佳節今回癸丑三
山陰禊事又城南
畫欄日暎看花鳥
寶墨香生上繭蠶
蘭湯祓除惟舊俗
竹林放達是清談
右軍遺序多興感
更把芳樽且宴酣
小華 安喆榮

가절이 이제 돌아오니 계축년 춘삼월
산음의 계사를 또 도성 남쪽에서 여네
따뜻한 날 정자 난간에서 꽃과 새 구경하고
묵향 나는 글씨 잠견지 위에 쓰여지네
난초 물로 재액 떨치는 건 옛날의 풍속
죽림에서 방달한 언행이 바로 청담이라네
우군이 남긴 서문 감흥이 많이 일어
다시 좋은 술 당겨 잔치 술에 취해 보네
소화 안철영

晉王逸少，以永和癸丑上巳，修禊事于會稽之蘭亭，皆當世之名流也。逸少之帖，孫興公之序，至今耀人耳目，能令人追慕不已。後永和癸丑上巳，金姬保續逸少之游于南麓老人亭，亦一時雅會也。

會者凡三十人，各賦一詩，余得而讀之，不覺一唱而三歎者，逸少之席，亦未能盡詩也。倘後之視今，猶今之視昔，安知其無追慕姬保者，不有如姬保之追慕逸少也？余生也晚，既未能目睹蘭亭，今也病，又未能迹則老人亭也，其爲感於今古者，固何如也！

惟古人風流，莫盛於東晉，晉之風流，亦莫盛於王謝諸賢，然南都偏安，國勢不振，此非士大夫揮麈流觴，靡然宴樂之日也。幸今姬保諸君子，生值昇平，暇日濟勝，雖能追永和之風流，亦豈不以永和風流爲戒也歟！

獻齋 卞鍾運

진나라 왕일소⁵⁸가 영화 계축년(353) 상사일에 회계의 난정에서 계사를 행하였는데 참석한 사람이 모두 당세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일소의 서첩과 손홍공의 서문⁵⁹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크게 끌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추모해마지 않게 한다. 영화의 뒤에 계축년(1853) 상사일에 김희보⁶⁰가 남산 기슭 노인정에서 일소의 모임을 계승하였으니 역시 당대의 아화이다.

이 때 모인 사람은 모두 30인으로 각자 시 1수를 지었는데 내가 그 시를 얻어 읽어보고는 나도 모르게 크게 감탄하였다.⁶¹ 일소가 회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또한 모두 시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다.⁶² 만약 후세 사람이 지금을 보는 것이 지금 사람이 옛날을 보는 것과 같다면 어찌 희보를 추모하는 이가 없어 희보가 일소를 추모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내가 늦게 태어나 난정의 모임을 직접 보지 못하였거니와 이번엔 병이 나서 또 노인정의 모임에 끼지 못하였으니, 그 옛날과 지금에 서운한 마음이 진실로 어떠하겠는가!

생각건대 옛 사람의 풍류는 동진 때보다 성대한 적이 없었고 동진 시대의 풍류는 왕희지, 사안 등 여러 현사들보다 성대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동진은 전국을 통치하지 못하고 남쪽의 도읍에 안주하고 있어 국세가 떨치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는 사대부들이 주미⁶³를 휘두르고 술잔을 물에 띄어 마시며 힘쓸리듯 연회를 벌여 즐길 날이 아닌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나와 여러 군자들이 태평한 세상에 태어나 여가에 명승지에 올랐으니 비록 영화 계축년의 풍류를 추모한다 하더라도 또한 어찌 영화 계축년의 풍류를 경계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재 변종운⁶⁴

58 王逸少: 왕희지를 말한다. 일소는 그의 자이다.

59 일소의……서문: 일소의 첩은 왕희지가 난정수계 서문에 쓴 글씨를 말하고 손홍공의 서문은 孫綽이 右司馬의 신분으로 참여하여 쓴 서문을 말하는데 이를 後序라 하여 맨 뒤에 실려 있다. 興公은 손작의 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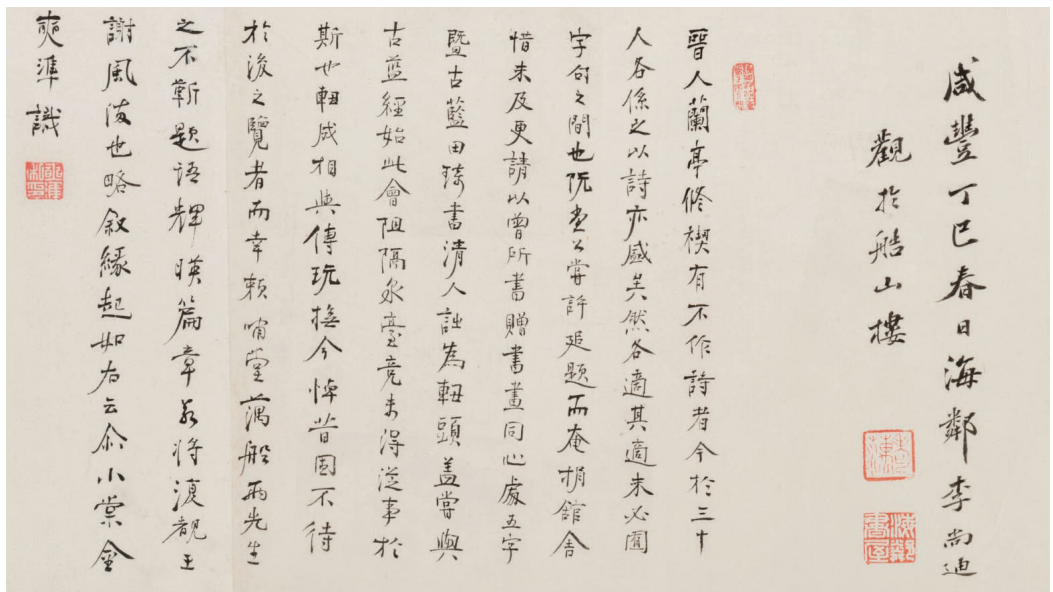
60 金姬保: 희보는 김석준의 자이다.

61 크게 감탄하였다: 원문은 ‘一唱而三歎’이다. 한 사람이 노래를 선창하면 세 사람이 화답한다는 뜻으로, 『禮記』, 『樂記』에 나오는 말이다.

62 일소가……아니었다: 참석 총원 42인 중 11인은 4언과 5언을 각 1수씩 지었고, 15인은 시 1수를 지었지만 나머지 16인은 시를 짓지 못하여 巨觥(큰 뿔잔)으로 별주 3잔을 마셨다.

63 麈尾: 고라니 꼬리털로 만든 먼지떨이로, 진나라 사람들이 이 주미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청담을 나눌 때 파리를 쫓거나 먼지를 떨었는데 점차 청담가의 상징물이 되었다.

64 卞鍾運(1790~1866): 본관은 거창, 자는 朋七, 호는 敝齋이다. 역과에 급제하였다. 당대의 문신인 이유원, 南公轍 등과 교유하였으며 중국으로 갈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저서에 『敝齋詩鈔』가 있다.



도6. 유숙, 〈수계도〉중 李尙迪의 배관기와 金爽準의 발문 부분

咸豐丁巳春日, 海鄰李尙迪觀於船山樓.

함풍 정사년(1857, 철종8) 봄날에 해린 이상적⁶⁵이 조산루에서 그림을 보다.

주문방인: “老藕(藕船 노인)”

백문방인: “海鄰書屋”⁶⁶

晉人蘭亭修契, 有不作詩者, 今於三十人, 各係之以詩, 亦盛矣. 然各適其適, 未必囿字句之間也.

阮堂公嘗許追題, 奄損館舍, 惜未及更請. 以曾所書贈 ‘書畫同心處’ 五子, 暨古藍田琦書 ‘清人誦’ 爲軸頭. 蓋嘗與古藍經始此會, 阻隔泉臺, 竟未得從事於斯也. 軸成, 相與傳玩, 撫今悼昔, 固不待於後之覽者, 而幸賴嘯堂 藕船兩先生之不斷題語, 輝映篇章, 若將復觀王謝風流也. 略敘緣起如右云爾. 小棠金爽準識.

65 李尙迪(1804~1865): 본관은 牛峰, 자는 惠吉, 호는 藕船이다. 한어 역관 집안 출신으로 12번 중국에 다녀왔다. 김정희의 문인이다. 溫陽郡守를 지냈으며 저서에 『恩誦堂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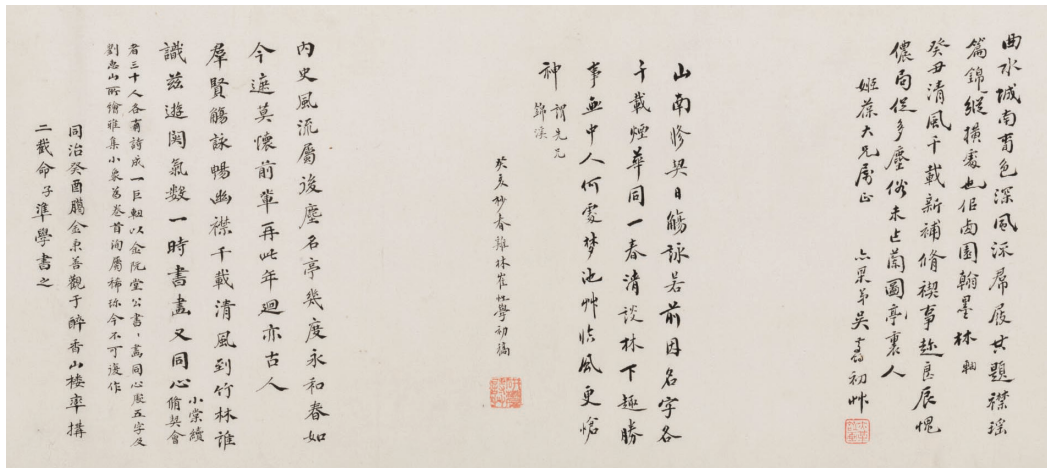
66 海鄰書屋: 李尙迪의 서재 이름으로 보인다. ‘海鄰’은 ‘바다를 건너가 사귀 이웃’, 즉 자신과 교유한 중국 문인을 뜻한다. 이상적이 사용한 ‘해린서옥’ 인장이 여러 과 『權域印藪』에 실려 있다. 그는 또 중국 문인의 편지를 모은 『海隣尺素』, 시를 모은 『海鄰書屋收藏中州詩』 등을 편찬하였다.

진나라 사람의 난정수제에서는 시를 짓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30인은 각각 시를 수록하였으니 정말 성대하다 하겠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취향대로 지은 것이라 반드시 글자나 구절에 얽매었던 것은 아니다. 완당공이 언젠가 제목을 써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제 때에 다시 청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일찍이 써 준 ‘서화동심처’ 5글자와 고람 전기가 쓴 ‘청인굴’로 시축의 앞 부분을 삼았다. 대개 언젠가 고람과 이 계획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유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결국 이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시축이 완성되어 서로 돌아가며 완상하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다. 진실로 훗날의 감상자를 기다리지 않고 다행히 소당⁶⁷·우선⁶⁸ 두 선생이 제사를 아끼지 않고 써 준 것에 힘입어 시편을 빛나게 하였으니, 마치 다시 왕희지와 사도 등의 풍류를 보는 것과 같다. 대략 이와 같이 그 내력을 서술한다.

소당 김석준은 기록한다⁶⁹.

주문장방인: “誰可憐你十季窓下無人間(그대가 십년 동안 창 아래서 공부할 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을 누가 가련하게 여기겠는가)”⁶⁹

백문방인: “東準私印”



도7. 유숙, <수계도> 중 권축의 끝 부분. 吳慶錫의 작품 감상 시와 金秉善의 배관기가 있다.

曲水城南春色深
風流裙屐只題襟
瑤篇錦軸縱橫處
也似西園翰墨林

도성 남쪽 굽이진 물에 봄빛이 깊으니
차려입은 풍류객들 그저 회포를 풀었네
활달하게 쓴 시편 모은 화려한 서화축
또한 서원아집의 시인, 묵객과 비슷하네

67 嘯堂: 金洄洙를 말한다. 철종 연간에 활동한 인물이며, 자는 致明이다. 雲科에 입격하였으며 저서에 『嘯堂遺稿』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임형택 편, 앞의 책(1991) 제7책; 김석희, 『소당 김형수의 생애와 문학』, 『고전문학과 교육』 8(2004), pp. 5-27 참조.

68 藕船: 이상적을 말한다. 본관은 牛峰, 자는 惠吉, 호는 우선이다. 한어 역관 집안 출신으로 12번 중국에 다녀왔다. 온양 군수를 지냈으며 저서에 『은송당집』이 있다.

69 誰可……人間: 자세한 내용은 각주 27) 참조.

癸丑淸風千載新	계축년의 맑은 바람 천고에 새로운데
補脩禋事趁良辰	좋은 날에 맞추어 계사를 행하였네
愧儂局促多塵俗	나는 세상일 많아 움츠려 살다 보니
未作蘭亭圖裏人	난정도 속 사람이 되지 못해 부끄럽네

姪保大兄屬正, 亦某⁷⁰弟吳慶錫 初艸. 희보 대형께 질정을 구하며, 역매 아우 오경석 초고
주문방인: “亦某詩畫(역매 오경석의 시와 그림)”

山南修契日	남산에서 계사를 행하는 날
觴詠若前因	음주와 작시가 전생의 인연인 듯
名字各千載	각자 이름은 천 년 전과 다르지만
煙華同一春	아름다운 봄 경치는 옛날과 같네
清談林下趣	맑은 담론은 은일의 아취가 있고
勝事畫中人	멋진 일은 그림 속의 사람 같네
何處夢池艸	어디에서 지당의 봄풀을 꿈꿀까

臨風更愴神〈謂先兄錦溪〉 바람을 맞으니 다시금 슬퍼지네〈작고한 형 금계를 말한다⁷¹〉
癸亥杪春, 鷄林崔性學初稿. 계해년(1863, 철종14) 초봄, 계림 최성학⁷² 초고.
백문방인: “研農⁷³詩艸(연농 최성학의 시고)”

內史風流屬後塵	내사 왕희지의 풍류 후인에게 남겼으니
名亭幾度永和春	난정에는 몇 번의 계축년 봄 지났던가
如今遮莫懷前輩	지금 내가 선배들을 추억한다 하더라도
再此年廻亦古人	이 해가 다시 오면 나 또한 고인인 것을
群賢觴詠神暢幽襟	여러 현인들 술과 시로 회포를 푸니
千載淸風到竹林	천년의 풍류가 죽림에 이르렀네
誰識茲遊關氣數	이런 놀이가 운명에 관계됨을 누가 알리오
一時書畫又同心	한 때에 서화를 같이하고 마음도 함께 하네

70 亦某: 오경석의 호이다. ‘某(매)’는 ‘某’의 뜻으로 梅의 고자이다. 罌라고 쓰기도 한다.

71 바람을……말한다: 1853년 수계 모임이 있는 지 10년 뒤에 당시 모임에 참석하였던 형 崔性孝가 생각나 슬퍼진다는 말이다.

72 최성학은 이날 모임에 참석하여 시를 남긴 錦溪 최성효의 동생으로, 1842년(현종4)에 23세로 역과에 급제하였다. 그의 시문을 모은 『研農遺稿』, 서화첩 『梧社聯吟帖』이 전한다.

73 農: 農의 이체자이다. ‘研農’은 최성학의 호이다.

小棠續修契會者三十人, 各有詩, 成一巨軸, 以金阮堂公書‘書畫同心處’五字, 及劉蕙⁷⁴山所繪雅集小象爲卷首, 詢屬稀珍, 今不可復作.

同治癸酉臘, 金秉善觀于醉香山樓, 率搆二載, 命子準鶴書之.

소당 김석준이 수계를 다시 이었으니 참석한 사람 30인이 각각 시를 지어 큰 시축을 만들었다. 완당 김정희 공이 쓴 ‘서화동심처’ 5글자와 혜산 유숙이 그린 아집소상을 권수로 삼았으니, 이런 진귀한 것을 위촉할 사람은 지금 세상에 다시 나오게 할 수 없다.

동치 계유년(1873, 고종10) 선달에 김병선이 취향산루에서 살펴보고 대충 절구 2수를 지어 아들 준학에게 명하여 쓰게 하였다^{도7}.

IV. 조희룡 <홍백매도> 해제

조희룡은 김정희의 영향을 받은 문인이자 서화가로 19세기 중인층을 대표하는 예술가이다. 이 <홍백매도>는 조희룡이 당시 권력을 잡은 안동김씨 세력에 의해 1851년 김정희와 權敦仁(1783~1859) 일파로 지목되어 전라도 임자도로 귀양 가 있던 중 가까운 벗 손암 나기의 요청을 받고 감격해서 그린 작품이다^{도8}. 당시 조희룡은 63세의 노인이고 나기는 24의 청년이라 자연 김정희가 이상적인 요청을 받아 1844년에 그린 <歲寒圖>가 연상된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이를 초월하여 우애의 의리를 지켜주는 것에 대한 감격의 발로라는 공통적 창작 동기 역시 흥미를 더한다.



도8. 趙熙龍, <紅白梅圖>, 1851년, 지본담채, 124.0×375.5cm, 일민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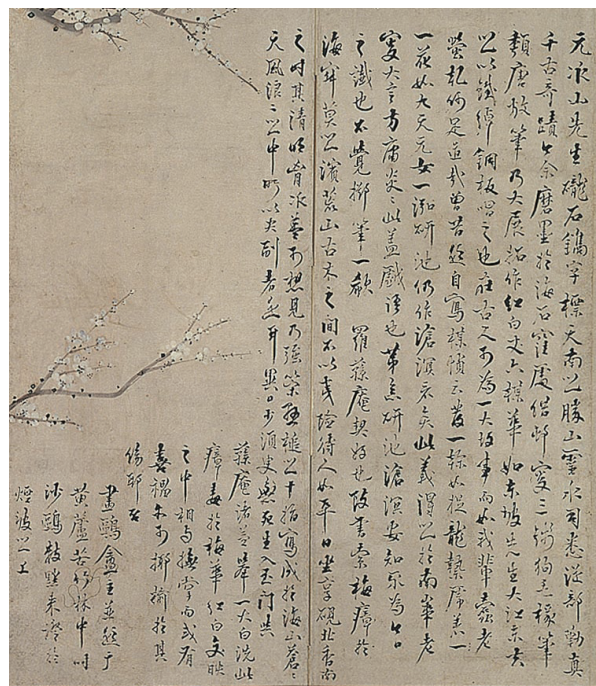
74 蕙: 원문은 ‘惠’인데, 유숙의 인장 등에 근거하여 교감하였다.

조희룡과 나기는 각각 문집을 남기고 있을 정도로 문인적 소양이 있는데다 시화에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다. 이 작품은 붉고 흰 매화 두 그루가 화면 중앙에 그려져 있고 좌우의 여백에 2편의 화제가 있다. 특히 이 화제에서 조희룡은 자신이 매화를 그리는 자세와 영향을 받은 인물, 그리고 자신의 예술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 앞 화제의 내용은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글이 상당부분 다르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부분은 직접 그림에 쓴 이 작품이 더 풍부하고 직접적이다.

이 그림을 부탁한 손암 나기는 1853년 김석준이 남산 노인정에서 개최한 중인들의 수계 모임 때 참석한 30명 중의 한 사람으로, 그 때 제작한 〈修契圖〉에도 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앞에서 20번째) 유숙의 〈수계도〉와 조희룡의 〈홍백매도〉는 나기를 고리로 이렇게 만나고 있으며 그 예술적 연관성을 드러낸다.

이 작품의 화제를 통하여 친구와의 우정으로 촉발된 그림 제작 배경과 그림에 담긴 조희룡의 예술과 인생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면 글씨와 그림을 통해서 유배의 처지에 있던 서화가 조희룡의 격정적인 감정까지 함께 음미해 볼 수 있다.

V. 조희룡 〈홍백매도〉 화제



도9. 조희룡, 〈홍백매도〉 중 첫 번째 畫題가 적힌 부분

元次山先生礪石鐫字，標天南之勝，山靈水司，悉從韶勒，真千古奇蹟。今余磨墨於海石窪處，借村叟三錢狗毛椽筆，頽唐放筆，乃大展拓作紅白丈六梅華，如東坡先生大江東去之以鐵綽銅版唱之也。在古人可爲一大故事，而如我輩蟲老蜚乾，何足道哉？

曾昔題自寫梅嶼云：“發一幹，如捉龍鬚虎；着一⁷⁵花，如九天元女，一泓研池，仍作滄溟看矣。”此義得之於南華老叟，大方廣炎炎，此蓋戲語也。第念研也滄溟，安知不爲今日之識也！不覺擲筆，一歛。

羅蓀菴契好也。致書索梅於瘴⁷⁶海寂寞之濱，荒山古木之間，不以夷險待人，如平日坐享硯北香南之時，其清明胸次，蓋可想見。乃強策懸槌之十指，寫成於海山蒼蒼，天風浪浪之中，所以快副者，是耳。異日，少須臾無死生入玉門，與蓀菴諸益，舉一大白，洗此瘴毒於梅花紅白交映之中，相與撫掌，而或有喜神等可擲輸於其傍也否？

畫鷗齋主並題于黃蘆苦竹林中，時沙鷗數點來證於烟波之上。

원차산⁷⁷ 선생이 돌을 갈고 글자를 새겨 천남⁷⁸의 명승을 표지하자, 산신과 수신이 모두 그의 지시를 따르게 되었으니⁷⁹ 참으로 천고의 특별한 공적이다. 지금 내가 바다 돌의 우묵한 곳에 먹을 갈고 시골 노인의 3전 짜리⁸⁰ 개털로 만든 낚은 큰 붓을 빌려 마음대로 붓을 휘둘러 마침내 붉고 흰 1장 6척 크기의 매화⁸¹를 크게 그려내었다. 이는 동파 선생의 「대강동거」⁸²를 철작동판⁸³을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것과 같다. 옛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고사가 되겠지만, 좀이나 반딧불처럼 늙고 마른 우리 같은 축들이야 말할 것이나 있겠는가?

언젠가 예전에 내가 그린 매화 그림에 이렇게 화제를 쓴 적이 있다.

75 一: 이 앞에 ‘一’이 한 자 더 있는데 우측에 삭제 부호가 붙어 있다.

76 於瘴: 원문은 ‘瘴’인데 옆에 도치 부호가 붙어 있다.

77 元次山: 당나라 사람 元結(723~772)이다. 차산은 그의 자이고 호는 漫叟이다. 시로 이름이 났다. 저서에 『次山集』, 『篋中集』이 있다. 『古文真寶』에 『大唐中興頌』이 실려 있다.

78 天南: 중국의 嶺南 지방을 가리킨다.

79 원차산……되었으니: 원결이 쓴 글이 무엇인지는 미상이다. 『차산집』 권6과 권12에는 원결이 763년 道州刺史로 부임하여 여러 샘이나 臺 등에 쓴 銘이 보인다.

80 3전짜리: 3전은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볼 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承政院日記』 영조 7년(1731) 1월 28일조 기사에 보면 궁궐의 魂殿의 수라간에서 은제 그릇과 옥등을 닦아 윤을 내는 銀器取色軍 4명, 玉燈取色軍 1명을 도성 시민을 고용해서 부렸는데 하루 품삯이 3전이었다. 예전의 노동력이 오늘날에 비해 저렴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돈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므로 지금의 시세로 따져 최소 5만원은 넘는 액수일 것이다.

81 1장 6자 크기의 매화: 원문은 ‘丈六梅華’이다. 부처님의 신장이 1장 육척이라는 데서 유래하여 ‘丈六金身’ 하는데 조희룡이 “佛有丈六金身，余稱大梅爲丈六鐵身，蓋丈六梅花，自我始也(불상 중에 장육금신이 있는데 내가 큰 매화를 장육철신이라 하였으니, 대체로 장육매화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희룡 著,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趙熙龍全集3: 漢瓦軒題畫雜存』(서울: 한길아트, 1998), p. 154.

82 大江東去: 흔히 「赤壁懷古」로 알려진 작품으로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여 「대강동거」시라고도 한다. 초서로 쓴 소동파의 醉筆 대작이다.

83 鐵綽銅版: 오늘날 拍이라고 한 악기의 일종으로 쇠나 구리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줄기 하나를 그려내는 것은 용을 잡고 호랑이를 움아매듯이 하고, 꽃 한 송이를 붙이는 것은 구천원녀⁸⁴ 같이 하며, 하나의 연지를 그대로 큰 바다처럼 본다.”

이 말의 뜻은 남화노수⁸⁵에게서 취한 것인데 허풍스런 말이 한창 기세가 올라 있다. 이는 대개 농담으로 한 말이다. 다만 생각건대 연지를 바다로 본 것이 어찌 오늘의 참이 되지 않을 줄 알았겠는가! 나도 모르게 붓을 던지고 한번 탄식한다.

나손암⁸⁶은 나와 우애가 깊다. 장기 서린 바닷가의 적막한 물가와 황폐한 산과 늪은 나무가 있는 이 곳에 편지를 보내 그림을 요구하였는데 처지의 좋고 나쁨을 가려가며 사람을 대하지 않고 평소에 필묵의 즐거움을 향유할 때⁸⁷와 똑같이 하였다. 그 청명한 흥금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마침내 철추가 매달린 듯 무거운 열 손가락을 억지로 눌러서 바닷가 산은 질푸르고 하늘에서 뿜뿜 세찬 바람 불어오는⁸⁸ 곳에서 그려내어 흔쾌히 부응한 것이 이 그림이다. 훗날 잠시 동안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서울로 돌아가⁸⁹ 다시 손암 등 여러 좋은 벗들과 붉고 하얀 매화가 서로 어리비치는 가운데에서 큰 술 사발을 들어 귀양살이의 여독을 씻어버리고 서로 손바닥을 마주치고 싶는데, 혹 그렇게 하면 희신⁹⁰ 등이 그 곁에서 야유를 하지나 않을까?⁹¹

화구암 주인⁹²이 누런 갈대와 참대가 있는 숲에서 그림과 함께 이 글을 쓴다. 화제를 쓸 때 갈매기 몇 마리가 안개 낀 파도 위에 와서 지켜보았다도9.

84 九天元女: 중국 신화에서 황제에게 병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 도교의 신으로 존봉되어 서왕모 다음 서열 가는 여신이다. 원래는 ‘九天玄女’인데, 아마도 강희제의 성명 愛新覺羅玄燁에서 이름에 해당하는 ‘玄燁’을 諱한 것으로 보인다.

85 南華老叟: 장자를 말한다. 장자는 당나라 현종이 南華真人으로 추봉하여 그 경전 역시 南華經이라 하였다.

86 羅蓀菴: 나기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蓬萊, 遜菴은 그의 호이다. 유숙의 <수계도>에 4언 고시를 썼다.

87 필묵의……때: 원문은 “坐享硯北香南之時”이다. 문필과 서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간 구조가 대체로 베틀이 앞에 있고 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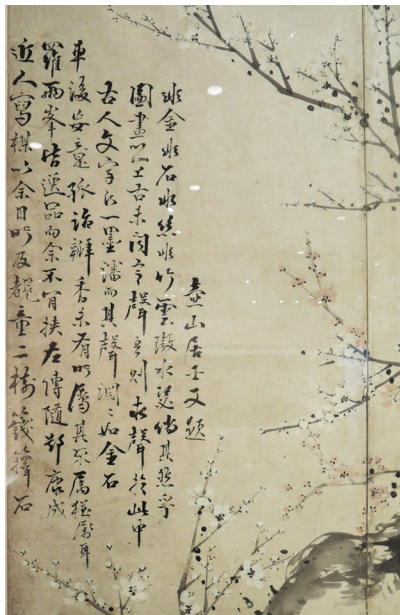
88 바닷가……불어오는: 이 말은 당나라 시인 司空圖의 『詩品』 중 「豪放」에 나오는 구절이다.

89 살아서……돌아가: 원문은 “生入玉門”이다. 漢나라 반초가 서역에 있으면서 장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상소에 이런 구절로 표현한 적이 있다. 『後漢書』 권77, 「班超列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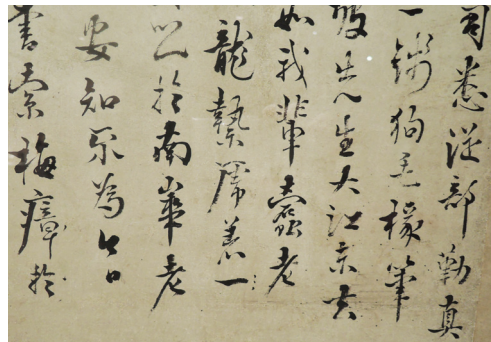
90 喜神: 기쁨의 신으로 吉祥을 담당한다. 방위에 따라 길흉을 담당하는 여러 신들이 있다.

91 여기까지는 조희룡 著, 실시학사 고전문화연구회 譯, 앞의 책(1998)의 2번, 5번 항목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이 작품의 내용이 더 풍부하다. 해당 번역의 도움을 받았다.

92 畫鵑齋 主人: 조희룡의 별호이다. 조희룡은 1851(철종2)~1853에 영광 荏子島에 유배되었는데 그 때 조희룡이 살던 집을 萬鵑嶺館과 화구암이라 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내력과 그 때 쓴 글은 『畫鵑齋調墨』에 실려 있다.



도10. 조희룡, <홍백매도> 중 두 번째 畫題가 적힌 부분



도11. 조희룡, <홍백매도> 중 첫 번째 畫題의 글자를 교정한 부분들. ‘一’자 우측에 삭제 표시로 점 3개를 찍었고 ‘瘡’ 우측에 도치 표시로 마주 보게 점을 찍었다.

壺山居士又題

非金非石，非絲非竹。雲璈水瑟，倘其然乎？圖畫之上，古未聞言聲，有則求聲於此中。古人文字即一墨瀋，而其聲淵淵如金石。車後妄意孤治，瓣香未有所屬，其不屬猶屬耳。羅兩峰皆逸品，余不肯挾左傳，隨饒康成。近人寫梅，以余目所及觀，童二樹 錢鐸石。

호산거사의 두 번째 화제

쇠도 아니고 돌도 아니며 실도 아니고 대도 아니다.⁹³ 구름에서 나는 운오⁹⁴ 소리나 물에서 나는 비파 소리라면 혹 내 그림에 맞을 지도 모르겠다. 그림에 소리가 있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없다. 만약 있다면 이 그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고인의 글은 한번 글을 써 놓으면 그 소리가 깊고도 넓어 금석과 같다. 수레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망령된 생각으로 제 혼자 공부를 하여 향 한 조각⁹⁵의 정성을 바치며

93 쇠도……아니다: 이 말은 자신의 그림을 음악으로 비유하면 금, 석, 사, 죽 등을 재료로 만든 악기로 연주하는 정형화된 관현악이 아니라는 말이다.

94 雲璈: 雲籊라고도 한다. 銅으로 만든 타악기의 일종이다. 다만 여기서는 구름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음악이라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95 향 한 조각: 원문의 ‘瓣香’은 ‘一瓣香’의 의미로 향 한 조각이란 뜻인데, 원래 불교 선종에서 세 번째 향을 올릴 때 “이 향을 도를 전해준 아무개 법사에게 공경히 올립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여 사승이나 어떤 이를 欽仰할 때 사용한다. 『佛光大辭典』.

사승을 따른 적이 없으니, 그 문하에 속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속한 것이라 하겠다. 나 양봉⁹⁶의 작품은 모두 일품이지만 나는 『좌전』을 끼고 정 강성의 뒤를 따르고 싶지는 않다.⁹⁷ 근래 사람 중에 매화를 그린 사람으로,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동이수⁹⁸와 전탁석⁹⁹이다^{10,11}.

VI. 맺음말

지금까지 유숙의 〈수계도〉와 조희룡의 〈홍백매도〉에 수록된 서발과 시문, 인장을 감상하였다. 글 전체에 대한 것은 이미 해제에서 각각 밝혔으므로 글을 마치면서 필자가 그동안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서화 작품 전시를 관람하면서 아쉽게 생각하였던 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하나는 박물관에서 긴 두루마리 그림이나 호접장을 전시할 때 그림부분이나 특정 면만 보여주지 말고 전 폭, 전 첩을 길게 죽 늘어 전시했으면 한다. 전시 공간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미술사적으로 의미가 큰 작품 등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예전 서화 작품은 그림만 독립적으로 그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글과 글씨가 함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발에 담긴 시문의 내용과 그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전체적 면모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제발의 경우 시각적으로 좋은 위치에 탈초를 한 원문을 함께 제시하여 독자의 관람을 돕는다면 관람자의 감상 수준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유숙의 〈수계도〉 역시 그림도 중요하지만 30명 전원이 쓴 시와 전후의 서발문이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작품은 적극 검토되기를 희망한다.

또 한 가지는 도록에 번역문을 실을 때, 원문을 표점 가공하고 교감을 하는 한편 해당 시문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주석을 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도록 체제로 보면 주석을 달기가 매우 어렵고, 단다고 해도 아주 간단하게 줄이거나 극소량의 주석을 단다. 이렇게 해서는 한문 원문에서 그런 번역이 나온 이유를 독자들이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문에 담고 있는 주요한 정보를

96 羅兩峰: 羅聘(1733~1799)이다. 청나라 때 揚州八怪의 한 사람으로 자는 遯夫, 양봉은 그의 호이다. 紅梅圖를 잘 그렸다.

97 左傳을……않다: 전인의 학문 궤적 속에 얹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鄭康成은 한나라의 학자 鄭玄의 자이다. 정현의 高足弟子로 자처하는 王坦之를 林公이 비꼬아 이렇게 말하고 “먼지와 때가 가득한 주머니를 떠나지 못한다(不離塵垢囊)고 매도한 일이 있다. 『世說新語』 권26, 「輕詆」.

98 童二樹: 童鈺(1721~1782)이다. 청나라 사람으로 자는 璞巖이고 이수는 그의 호이다.

99 錢籛石: 錢載(1708~1793)이다. 자는 坤一, 탁석은 그의 호이다. 蘭石을 특히 잘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문의 ‘籛’은 ‘錢’의 오자로 판단하여 바로잡았다.

사실상 많이 놓치게 된다. 한문은 지금의 한글과 달리 풍부한 전고의 바탕 위에서 글이 작성되어 늘 심층적 뜻이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적으로도 현재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 오히려 많다. 또 포핌, 신분, 비약, 상징 등 여러 가지 한문 문장의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은 일종의 수사적인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원문의 골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言外之意의 표현을 위해서는 주석이 필요하다. 주석도 번역문의 일부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고 도록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구현했으면 한다. 특히 최초 공개되는 작품의 경우 해당 도록에 가능한 그 두루마리와 첩의 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모두 영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일종의 관람객을 위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각 전시실에 작은 책상과 의자를 놓고 거기에 도록을 비치하여 관람객이 관람을 하다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원할 경우 그걸 뒤적여 보고 다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적당한 공간에 설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여 장 시간 관람하는 미술 애호가 및 노약자를 배려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관람자가 보다 나은 지적, 정서적 환경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전시 목적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필자가 여러 전시를 관람하면서 평소 많이 느끼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말해 보았다.

참고문헌

- 한국고전번역원 DB(<http://db.itkc.or.kr>).
 林煥澤 主編, 『間巷文學叢書』, 驪江出版社, 1991.
 姜明官,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柳玉暉, 「蕙山 劉淑에 대한 고찰」, 『역사문화연구』 12, 2000.
 조희룡 著,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譯, 『趙熙龍全集』, 한길아트, 2003.
 孫禎希, 「19세기 碧梧社 同人들의 繪畫世界」, 『미술사연구』 17, 2003.
 국립중앙박물관 편,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016.

Yu Suk's *Literati Gathering of the Middle People* and Jo Huiryong's *Blossoming Red and White Plum Trees*

Kim Jongtai*

The exhibition the City in Art, Art in the City provides a broader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ization and developments of art in the late Joseon society. Along with disclosure of hitherto unknown private collections, this exhibition also attempts to shed light on new characteristics of well-known art works. For this approach, this paper offers translations of prefaces, poems, and inscriptions, annotations on primary sources, and interpretations of seals from two representative paintings of this exhibition: *Literati Gathering of the Middle People* from the collection of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Blossoming Red and White Plum Trees* from the collection of Ilmin Foundation and Culture. These paintings were created by two preeminent middle-class painters, Yu Suk (1827-1873) and Jo Huiryong (1789-1873). Yu and Jo both were well-versed in history of calligraphy, variant forms of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classics, so that their literary attainments and knowledge could be applied to their artworks proficiently. Yu Suk's *Literati Gathering of the Middle People*, which is a hand scroll of 2.5 meters in width, includes preface, poems and seals, owners of which were as many as thirty and collaborated in a gathering. Their writings provide hints to understand the atmosphere of the gathering and to confirm the identities of participants in the gathering on the painting. Jo Huiryong's *Blossoming Red and White Plum Trees* contains two inscriptions rendering his aesthetics, art philosophy, and history with painting's patron, Na Gi (1828-1874), so that it allows audience to appreciate multi-layered perspectives in it. It is hoped tha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helping audience to more fully comprehend paintings by reading translations and annotations as an addendum.

Key words: Yu Suk, *Literati Gathering of the Middle People*, Jo Huiryong, *Blossoming Red and White Plum Trees*, Poem, Inscription, Seal.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